

제
7
호

춘천시신문

- 전시민 전영역의 복음화 운동
- 기독교 연합운동
-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 민족복음화 전략도시 운동
- 세계복음화 지원운동

발행·인쇄인: 조남진 편집인: 조충환 (200-091)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0361)256-1260-1 FAX(0361)257-1260

3·1절 기념 연합예배



춘천 기독교 연합회장 김광국 목사는 제 80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연합예배를 주관하고 연합회산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지난 2월 28일 주일 오후 7시 제일감리교회에서 기념예배를 드렸다.

한국기독교교회에 있어서 3·1절은 어느 기관단체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당시 민족지도자들의 거의가 기독교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교

회가 동참하였으므로 일본은 교회를 가장 중요한 저항 세력으로 여기고 41개 교회당을 불태웠으며 4만 6천명을 온갖 고문과 함께 옥에 가두고 1만 5천명을 피살한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날 연합예배에는 1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총무 한균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황영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부회장 유태희 장로는 대표기도에서

우리민족을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IMF의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으며 김삼혁 목사와 최영조 목사는 특별기도에서 나라와 민족 복한 동포를 위하여 간구하였으며 부회장 최종인 장로는 헌금기도에서 북한동포를 살리는 헌금이 되기를 기도하였다. 그리고 평화감리교회 살림성가대는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예배를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였으며 성광장로교회 박현숙 집사가 낭독한 3·1절 독립선언문은 3·1 정신을 마음속 깊이 심어주었고 애국가 제창은 나라사랑의 마음을 더하게 하였다.

연합회장 김광국목사는 광고에서 드린 헌금전액을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위하여 쓰겠다고 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

초대회장 임택창 목사는 설교에서(빌 1:12~18) 자유의 소중함을 역설하고 하나님앞에 양심적으로 삶으로 양심의 자유, 면죄의 자유, 민족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 3·1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역을 살려야 한다. 이는 곧 춘천성시화를 위한 삶이라고 하였다.



우수신문제작위한 연석회의

성시본부 기획위원 및 신문운영위원 연석회의가 조남진 본부장 주재로 2월 23일 오후 6시 어린이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은 두 위원회가 자리를 함께 한 첫번 회의로써 간담회 성격을 겸하였다. 참석한 위원들은 춘천성시화 운동과 성시신문제작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고견과 비판등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반성과 격려도 빼놓지 않았다.

신문위원회의 총무 허광웅 장로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 허광웅목사는 처음 사람 처음 믿음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춘천성시화운동과 성시신문 제작에 있어서 첫 믿음 첫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면 성시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역설하여 감동을 주었다.

오늘 회의는 신문운영위원장 조충환 목사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본부장 조남진 장로는 인사에서 모든 위원들의

희생, 봉사로 성시화운동과 성시신문 제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격려와 함께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두 위원회는 오늘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결속을 다지고 협력하여 결집된 역량으로 성시화를 위하여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성시본부 기획위원회의와 성시신문운영위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수, 직장선교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모임을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검토 보완 추진하고 있다.

연석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보다 좋은 신문제작을 위하여 신앙의 경륜과 지역을 겸비한 원로 목사 장로를 고문(16명)으로 추대하고, 교회 담임 목사 시무장로 집사 교수 등을 지도위원(49명)으로 위촉키로 하였으며 춘천지역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세례의 축하광고를 매년 3회 집중적으로 게재하여 신문제

작비용을 충당하기로 하고 위원들은 명예기자가 되어 교단별, 분야별, 소식 광고 투고를 수집하는 일에 협력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조남진

장로, 이학규 장로, 유근창 교수, 김영명 회장, 이갑용 간사, 조은제 장로, 안동규 교수, 김남철 장로, 김동렬 장로, 김용배 장로, 김용진 장로, 김준언 목사, 맹영웅 장로, 맹영식 목사, 박영휘 장로, 박재복 총무, 이영규 장로, 신종철 집사, 조충환 목사, 최상도 목사, 황병찬 권사, 허광웅 장로, 허창 목사 등이다.



이달의 강단 · 이달의 앙식

초대교회 부흥의 기초



정 상 교 목사
샘밭침례교회

복음전파는 예수님의 최대의 지상명령으로써 구원받은 자들과 오늘 교회의 사명이다. 부흥하는 교회는 사도행전을 토대로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해 전념한 결과 능력을 행하게 되었으며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되었다.

춘천성시화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들의 목표이다. 명령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을 뿐이다.

•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다(막 9:14). 기도에 전념하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귀신들린 아이문제를 해결하

지 못한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에서 기도의 능력을 실감하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믿는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기도의 심지에 불이 붙어 폭발할 것이다. 말세 때에 주일을 성수 하여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

교회는 협력과 협동으로 되는 것이다. 춘천성시화는 오랜 역사에 비해 진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 협동이 없고 손발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성시화의 모델 도시가 되어 타 도시들이 춘천에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자기를 포기하였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소유를 나누는 삶이었다. 우리도 소유를 서로 나누는 무소유자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초대교회는 증인의 목표를 위해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 교단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목표 위해 나가야 한다. (행 1:12~14)

예수안에서 좋은일이 일어납니다



명 성 훈 목사
교회성장연구소장

“네 믿음대로 될 지어다”는 무서운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다. 성공하려면 나는 성공자라는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인들과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성공자이다(요 17:4)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보시는 나의 참자화상을 볼 줄 아는 자가 되기 바란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다. 따라서 믿는자는 위대한 성공자이다.

• 나는 구원받았다는 자화상을 가져야 한다. 그 이름들이 생명의(구원)에 있느니라(빌4:3) 구원의 의미를 날마다 누리고 깨닫기 바란다. 구복서(코미디언)는 구원(9

원)이 10원보다 더 귀한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구원받으므로 왕자의 신분이었다. 왕자의 신분은 왕이다. 세상에서 불쌍하게 한심하게 살았더라도 구원받으면 성공자이다.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다.

• 나는 축복받았다는 자화상을 가져야 한다. (빌4:19) 나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공한 것이다. 필요를 채우시지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

예수그리스도안에서 복받아야 지 그책에서 돈버는 것은 악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알면 부요해진다. (사편23편)

• 나는 행복하다는 자화상을 가져야 한다. (빌4:18)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기뻐했다. 성령의 온사로 봉사하면 기쁘다. 성공의 비결은 좋아하는 것이다. 봉사를 취미로(영적 취미)하자.

• 나는 거룩하다는 자화상을 가져야 한다. (빌4:8)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는 것이다. 거룩을 추구하는 성공이다.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돈, 출세의 추구, 이런 방법으로 교회 운영하므로 IMF가 온 것이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



김 지 한 목사
신복장로교회

1.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주기철

주기철목사는 한국기독교가 낳은 세계적인 신앙인 가운데 한 분이다. 일제 말기 순교한 주기철 목사는 예언자적인 안목을 지닌 분으로 목회 초기부터 죽음 앞에 서있는 순교자적 신앙인으로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웠다. 주기철 목사의 이러한 신앙은 목회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기

독교인들에게 추앙을 받고 홀모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인 ‘천황제’ (Heavenly King's Ideology)와 ‘신사참배’ (Shinto Nationalism)를 강요하여 한국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내선일체를 이루려고 하였다. 이러한 암울했던 시기에 주기철목사는 민족의 질곡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일제의 우상화 정책에 대항하여 순교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킴으로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민족혼을 일깨워 주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승리의 표본이 되었다. 김린서의 표현대로 주기철 목사는 “잘 믿었고, 잘 살았고 또한 잘 싸웠고 참 잘 죽었다.” (일사각오, 5쪽)

주기철 목사는 역사의 현장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교회를

동시에 보았으며, 이러한 역사관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 주기철 목사의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기철 목사의 영성은 첫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려는 하나님 중심주의 영성 둘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청빈의 영성 셋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근거를 둔 말씀 중심의 영성의 산물이었다. 주기철 목사의 이러한 역사관과 그의 신학은 결국 그를 순교로 몰아갔다. 그의 순교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성서적 진리에 충실하려는 그의 신앙의 절정이었다.

따라서 몇 회에 걸쳐 주기철목사의 생애를 일제의 국체 변혁에 저항하여 하나님 중심주의를 실현하고자한 영성으로 조명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계속)

개미와 베짖이(新版)



조 영 훈 장로
CBS 본부 기획실장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안 열리고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여덟칠 중노동에 시달린 개미는 큰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베짖이는 개미를 업어 자기 승용차에 태우고 병원 응급실로 가서 필요한 진료를 받게 해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된단다?

물론 우스개 소리이긴 하지만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흥미롭다.

일확천금(一攫千金), 국어사전에는 “힘 안들이고 단번에 거액의 재물을 얻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이 과연 젊은이들이나 소수의 투기꾼들만이 품고 있는 생각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하게 갖고 있는 엄청난 축복의 기대-그것이 황당한 일확천금의 기대와 다른 것일까?

최근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 최선의 노력도 없이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기대하거나 기적같은 결과를 하나님께 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다.

나는 내 믿음의 분량이 크질 못해서 오묘한 하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이 많겠지만 내 신앙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내것을 내어 주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회생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큰상을 약속하신 것으로 믿고 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믿음이 자랄수록 자기의 것을 자꾸만 내어놓는데 비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왜 자꾸만 내것을

늘리고, 꼭 움켜쥐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일확천금의 축복을 하신 적은 없다.

오방이여의 기적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필요한 만민의 축복이었고, 기를 못 잡아 낙심한 자들에게 그들이 쫓겨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 주신 정도의 기적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오히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땅에다 재물을 쌓아 두지 말라고 하셨으며, 오히려 네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이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기독교인들이 알량한 믿음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과 무엇이 다를까?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회생이며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자신을 비우고 자기의 것으로 소외된 이웃, 굶주린 동포에게 베푸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믿는다.

춘천의 성시화운동도 먼저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춘천교회 속에서 자기를 비우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 회생하는 모습을 그리스의 향기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완성되어 지리라 믿는다.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독교계뉴스

성시화(聖市化) 불씨안고 대구로 향한 전용태 장로



전용태 장로

전용태장로(전 인천지검장)는 2월19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하였다.

이번 전장로님의 인사발령은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할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동쪽 춘천에서 도시(都市)의 성시화 운동을 시작하여 중부도시 청주에 성시화의 불씨를 물었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관문 인천성시화 사역에 정열을 쏟았으며 이제 성시화의 소식이 거의 없는 영남지방의 중추도시 대구로 처소를 옮기게 된 것은 영남의 성시화를 위한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는다. 지금까지 그분의 정성어린 사역에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대구시의 성시화를 인도하실 것이다.

춘천 YWCA '99세계 기도일 예배

박용덕 춘천YWCA회장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베네주엘라작성)이란 주제로 3월 5일 오전 11시 성광장로교회당에서 '99세계 기도일예배'를 드렸다.

이 행사는 한국교회 여성 연합회 세계기도일 위원회(이정옥 회장, 강필수 위원장)가 주최하고 국민일보,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기독교 텔레비전이 후원하였다.

일곱자녀를 둔 다윈 제임스는 유럽과 아시아

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당국의 불이익처분으로 고통 당하는 것을 보고 돕기 위해 1887년 선교의 날을 정하고 기도한 것이 세계기도일의 시작이다.

100여명의 여신도가 드린 예배는 경건하였으며 YWCA합창단의 특송과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의 설교에 이어 촛불을 점화하고 고동당하는 세계 자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동부연회 제 9차 정기총회

3월 11일 오전 11시 원주시 동부연회 회의실에서 12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김명기 감독의 설교, 박노홍 전국장로 회장의 축사와 유공자 표창이 있었으며 사업및 재정보고와 회칙개정제에 이어 10대회장 선출이

있었다.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회장 유태희장로(춘천제일교회) 총무 심인섭장로(춘천신성교회), 감사 고병열장로(홍천만민교회) 유재우장로(원주제일교회), 부회장은 전형위원회에서 9명을 추대하기로 하였다.

세계 복음화협의회 평신도회 신년예배

전국 평신도회 신총회회장(소양성결교회 안수집사)이 주관하는 신년예배가 춘천에서 있었다.

이날 예배에는 피종진목사(총재)설교와 복음성가가수 박정미 집사의 찬양, 몸찬양단의 율동에 이어 참석자들에게 여러 목사님들의

안수기도가 있었다.

세계복음화협의회는 88년도에 창립되었으며 본부산하에 평신도회, 사모회, 부흥사단, 여교역자회 4개단체와 15개 운동 본부가 있고 세계복음화를 목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다.

재미 침례교회 허걸 목사 춘천방문



허걸 목사

허걸목사(뉴욕제일침례교회)는 3월2일 오전 10시 춘천 성시운동본부와 본사를 예방하여 후원금 10만원을 기탁하였다.

허목사님은 65년부터 83

년까지 시무했던 생발 침례교회와 제2고향인 춘천지역의 목사님, 장로님들의 소식을 접하고자 호주교회 부흥회 인도자 가는 길에 잠시 들렀으며 "춘천성시신문" 발행 소식을 듣고 여비를 절약 후원하였다. 허목사님은 70년초부터 10여년간 춘천지역 교역자연합회 총무로 있으면서 교회의 연합운동과 YMCA Y.S man 클럽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춘천 성시화운동은 전국적·세계적인 운동이라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성시신문 평생회원 등록 제1호



이범찬 집사

시화 일꾼들에게 큰 힘을 주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집사님은 95년 11월부터 2년여동안 국가안전기획부 강원지부장으로 재직중 홀리클럽활동과 성시화운동에 열과성을 다하였으며 솟구쳐 오르는 믿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방문, 간증설교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과 도전을 주었고 본부에 재직중에도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성시신문을 통하여 성시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범찬집사(전 국가안전기획부 정보대학원장)는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춘천성시화운동의 초석을 다지고자하는 마음으로 퇴직을 하면서 100만원의 평생 회비를 송금하여 성

CBS 본사 기획실장 조영훈 장로



조영훈 장로

조영훈장로(전 춘천기독교방송본부장)는 3월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본사 기획실장으로 영전하였다.

조장로님은 춘천에 재직중 CBS의 발전은 물론 초교파 연합운동에도 남다른 열성을

보였으며 시청자와 교회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춘천에서 일고 있는 성시화 운동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 성시화기도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 대표기도와 합심기도 등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또한 풍부한 내용의 칼럼으로 성시신문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워 주었으며 많은 독자들로부터 존경받는 장로님으로서의 이미지를 남기게 되었다.



기독교계뉴스

총신대학교 박사원에 입문한 박목사



박 상 호 목사

춘천제일장로교회 박상호 목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있는 리폼신학교의 박시과정 수업을 마치고 2월 24일 귀국하였으며 2월 25일 오전 11시 양문교회(이성철목사)임당 예배에서 설교하였다.

워싱턴 국제 기도모임 참석



이 학 규 장로

이학규장로(춘천시화 기도모임대표)는 미국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3·1절 경축 비전 126기도모임 춘천지역 대표로 부인(현복희 권사)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미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한 후 귀국 예정이다.

또한 이장로님은 2월 24일 오전 11시 홍천오안 초등학교에서 명예로운 퇴임식을 갖고 45년여의 교직생활을 마감하였다.

이제 그는 춘천복음화와 성시화 사역을 위하여 전념하게 될 것이다.

결연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이 순 훈 장로

world vision 춘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순훈장로는 3월 5일 오후 6시 30분 복지관 강당에서 결연청소년 100명에게 각각 10만원씩 1/4분기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는 복지관 결연청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선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결연가정의 학자금부담을 줄이고 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상문 목사 필리핀 교회 순회집회



정 상 문 목사

정상문 목사(동원감리교회)는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지 필리핀 감리교선교 100주년 사업으로 98년 2월 비기오 교구 3개연회 순회집회를 하였으며 잔여 2개연회를 금년도에 순회한 것이다.

의료선교와 복음선교 예배당 건축부지를 물색하였으며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해 대학원 진학(대출)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특강(인간의식구조와 육구구조, 목회지도력)을 하였다.

♪♪♪ 흑인영가합창단 내한공연

"Liberty Zion choir"는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5명으로 구성된 흑인 혼성합창단이다.

이들의 특징은 영화 Sister Act에서 나왔던 Team과 같이 리드미컬한 율동과 함께 빠른 리듬과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소리로 한차원 높은 음악을 선보이기에 충분하다.

미국동부지역에 퍼져있는 흑인영가를 중심으로 주기도문, 어린양을 보라 등의 성가곡과 그리운 금강산등 한국가곡을 부를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춘천 CBS 개

국 4주년을 기념한 합창공연이며 4월 10일(토) 오후 7시 춘천문화예술관에서 공연된다.

춘천에서는 보기드문 음악회이므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천사의 화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춘천 CBS 신임본부장 취임

99년 3월 5일자 춘천기독교방송본부장에 취임한 한국연(韓國淵)본부장은 79년 편성국 프로듀서로 입사하여 편성국 제작 1부장, 광주 CBS편성부장을 거쳐 본부 기획실 기획부장과 기획실장

으로 있으면서 전문방송인으로 능력을 발휘한 엘리트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 춘천 CBS본부장으로 영전한 것이다.

한본부장은 강원도 영월 출신으로 성균관대학 영어영문

학과를 졸업하였다.

CBS시청지역의 많은 시청자들은 신임 본부장에 대한 기대가 크며 좀더 발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재정안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성시화의 디아포라스 김주환 장로

김주환장로(전 춘천교도소장)는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2월 12일자로 경북 청송군에 있는 청송제2교도소장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춘천 교도소장 재임기간에는 직장 복음화 및 춘천성시

화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밤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였으며 조연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김장로님은 청송의 성시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역할 것이다.

어쩌면 그는 성시화운동의 디아포라스로서 그곳에서도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춘천성시신문은 김장로님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춘천경찰서 교경 협의회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회장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는

3월 4일 오전 11시 순복음춘천교회당에서 3월달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경찰행정청의 무사와 바람직한 수행등 지역사회의 위하여 교회가 협력해야 할 일들을 협의하였다.

총무 문정삼 목사의 사회, 조득용 목사 기도, 김주환 목사 설교, 차덕수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회장 차덕수 목사 주재로 월례회가 진행되었으며 전수산 춘천경찰서장등 관계관과 50여명의 목사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장로연합회 헌신예배 및 운영위원회의



유 태 회 장로

춘천기독교 장로 연합회장 유태회장로(제일감리교회)는 3월 14일 오후 3시 춘천제일장로교회당에서 금년 첫분기 헌신예배와 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이날 회의에는 100여명의 장로회원들이 참석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2분기 사업을 협의 결정하였다.

장로 헌신예배는 황병호장로의 사회로 시작되고 허중구 장로 기도, 길용진장로 성경봉독, 이무식장로 헌금기도 그리고 박상호목사(제일장로교회) 설교와 축도로 폐회하였다.

유장로님은 3월 11일 동부연회 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기독교문화



- 한국수채화 협회전 다수 출품
- 벽전(덕수궁벽) 동인전
- 미8군 SAC CRAFT - SHOP개인전
- 춘천 시립문화관 개인전 2회
- MBC항토작가 초대전
- 제17회 세계캘버리대회 기념 초대전
- 중인전 출품(갤러리아 미술관)
- 주소 : 춘천시 우두동 삼성APT 103동 704호(우 : 200 - 150)
- 전화 : (H) 251 - 2661 (O) 252 - 0721
- 출석교회 : 새순교회 집사

직장에 올려 퍼지는 복음의 메아리



김용일 집사
한림대학 선교회장

대학의 기능은 교육·연구·사회봉사이며, 한림대학교의 교훈은 사랑·진실·자유로서 1982년 4개학과로 개교하여 현재 33개 학과에 학생 6200명, 교직원 410명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졸업과 입학식이 거행되며, 신입생들은 꿈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오고 졸업생들은 갖고 닦은 학문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올해도 새학기에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여 교내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직장교회는 기도예배로 95년 5명의 직원이 모여 신우회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회의실이나 식당 등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름에

는 야외 벤치에서 기도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김밥을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으나, 직장내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릴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소망과 믿음으로 '96년 대학본부 지하실에 신우회원들이 직접 15평의 예배실을 만들고 십자가를 걸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 예배실에서 직원선교회, 기독교수회, 학생동아리 예배 및 성경공부, 기도모임 등 24시간 열려있는 직장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시간부터 직장교회 안에서, 캠퍼스 잔디밭에서 손을 맞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학원의 복음화와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학생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찬양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이 힘을 얻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직원선교회는 매주 월요일, 기독교수회는 매주 수요일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와 기독교인의 연합을 위하여 교수, 직원, 학생의 첫 연합예배를 '98년 10월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뜨겁

게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대학 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사랑과 감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어서 '99년부터는 봄가을에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계획하고 1500명의 새식구 환영을 위한 개강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원들의 간절한 기도로 전국 우수대학 선전에서 3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직장선교회의 '99년도 기도 제목은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춘천성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기독교 교과목이 교양선택 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림정보산업대학과 춘천성심병원에 직장선교회 설립, 이사장, 총장, 한림정보산업대학장, 병원장의 믿음과 건강, 대학내에 하나님을 믿는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명문사학으로 이곳 봉의산 중턱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춘천도성을 향해 복음의 메아리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힘껏 외칩니다.

주님! 춘천을 성시화 도시로 이루어 주옵소서

눈

태어 나는 순간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위장한 채

날을 세웠던 너였다.

이제 여섯갈래의 톱날을 몸에 지니고

이 차가운 야방(異邦)을 쓸어 대며 단죄했던

무딘 톱날을 잡자

서로 몸으로 부둥켜안아

끝내는 따뜻한 자에게 머물러

눈물짓는 시간만을 키우고

상처받은 자를 싸매 주면서

고이 간직하며 품었던 본래의 투명한 마음

한 자락 이 땅을 밟는 날까지 펼쳐자

선불리 값싼 동정으로

오팍 패인 세상 허기를 호사롭게 채우던

일일량 접어 두고

이 땅에 가득한 흉물을 표백한다며

우물대던 춤 사위 멈추고

다만 따뜻한 사람의 품만을 그리며

그렇게 기대어 눈물 짓자

곽 성 진 전사
춘천 중앙김리교회

목회자를 위한 컴퓨터 무료교육

@대상 : 목회자, 사모, 교회 및 선교단체 사무원

@교육기간 : 초급반(2주), 중급반(2주), 고급반(2주, 개설예정), 인터넷 반(2주, 개설예정)

*무료 컴퓨터 A/S

@대상 : 1)교회컴퓨터

2)목회자컴퓨터 3)선교단체컴퓨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한국 PC통신 하이텔 강원대행점을 개설케 되었습니다. 본 선교회를 통하여 PC통신에 가입하시면 가입비 10,000원을 무료혜택 받으며 본 선교회에 매월 1000원의 선교비를 돕는 일이 됩니다. 하이텔에 가입하시면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선교후원(우체국 : 202051 - 0163038

예금주 : 정보통신선교부)

*PC통신선교회에서 봉사해주실분을 찾습니다.

@신앙인으로 Window 및 한글 97, PC통신, Internet 강의 가능한 자 남여 0명

@신앙인으로 컴퓨터를 배우며 선교하는 일에 함께하실 (여) 0명

*하이텔 도우미를 찾습니다.

@자격 : 신앙인으로 신장 165cm 이상으로 용모단정한자 1975년 이후 출생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부착

문의전화 : (0361)257 - 8255, 252 - 2006

Fax : (0361)252 - 20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정보통신선교회

시민광장 시민과 함께

만일 나에게 주님이 없었다면



김 준 배 집사

생후 3개월만에
생모가죽로 할머니 손에 양육 받았으며
누님은 흥역으로 청각장애,
나는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고
척추마비, 청각장애의 늪에
빠져 들었다...

‘찬미예수’에서 신창균님이 작사·작곡했다

“만일 나에게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이 노래는 비록 잘 듣지 못하는 저로서는 정확히 부를 수 없는 형편이지만 다행히 악보를 조금 읽을 줄 알아 나름대로 속으로 읊조리곤 하는 저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나에게 주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 봅니다. 좀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며 그런대로의 직장도 남들처럼 신분상승의 꿈을 갖고 두셋의 아이를 가진 가정으로서 평범한 삶, 세상적 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본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에서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즉 그런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누리기에 제 본성이라는 것이 물질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세상적 쾌락에 탐닉하기 쉽고 공격적이며 이기적이고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 변화된 성품으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 요즘도 빈번히 그런 본성의 잔재로 들끓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여 스스로도 놀라는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그런 본성으로 학교를 제대로 마치고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거나 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을 가진 상태도 해도 본인 본성으로는 제멋대로 살아가며 본인에게나 사회에 해악이 됐으면 됐지 결코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실로 죽음과 심판의에 달리 기대할 것 없는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일 것이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진노의 자식에 다름아닐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무섭도록 치밀하심에 놀라움을 넘어 차라리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따른 가치치기는 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혹은 훨씬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듯 합니다. 그것은 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세우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며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조치의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가정의 환경부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조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춘천에서 몇 개 안가는 부자였는데 외아들이 아버지 가 소년시절부터 부모의 속을 썩히는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중학을 겨우 마친 아버지는 고등교육을 받은 어머니와 결혼하셨지만 부모와의 갈등과 외척들 등에 의해 부부간 늘 싸움이 끊이지 않

았던 모양입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고 극단적이었는지 결국 누님이 이어 저를 낳고 3개월째 어머니가 가출을 했다는 것이고 저희 남매는 생모의 얼굴도 모른 채 조부모님의 손에 양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방접종을 미처 받지 못한 바람에 누님은 홍역을 앓다 청각을 잃고 말도 배우지 못하게 되었으며 정상아보다 튼튼했다는 저 또한 소아마비에 걸려 그 후유증으로 척추마비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에 커다란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뚜렷한 직장 하나 없이 조부모님과 다뒀으며 저희를 그대로 잘 키워보고자 아버지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때로 어린 저희의 마음에 적잖은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몸이 허약하게 된 저는 그나마 성격 만큼은 호전적이고 짜증 잘내는 아이였고 동생아이들과 곧잘 장난도 치며 놀았던 듯 합니다. 그런데 유모인지 식모인지 모르는 어떤 여자의 등에 업혀 동네에서 가까이 우뚝 서 있던 안식일 교회를 갔던 일로 처음으로 거룩한 분위기를 접하게 되고 거기서 성경 내용에 관한 슬라이드 본 기억이 지금도 그때 창유리에 비친 60년대 소도시의 밤풍경과 함께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또 어둡고 불안이 감도는 집안에 밀레의 만종과 다빈치의 모나리자 복제화가 낡은 액자에 걸려 있어 잠자리에서 늘 바라보며 지냈고, 그림에 조금 재주가 있었던 아버지가 만화같은 그림을 그려주시기도 하여 재미있어 했던 일도 있었는데 아마 그림에 대한 충동의 동기는 이런 가운데서 싹트던 것 같습니다. 뒤틀러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수술받던 병명생활 동안 복도에서 들려오던 찬송가 소리도 제 기억의 어두운 복도에서 은은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의 개, 이슬우와, 안데르센 등의 동화와 그림책을 보며 침대에서 지낸 것도 그림에의 감각을 키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수술 중 마취후유증과 여러 잔병치레로 처방한 약물중독으로 뒷날 제 청각도 서서히 상실되어 가는 중세의 원인을 겪기도 했지만 학교생활은 무난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만화그리거나 특별활동을 통해 그림을 시작하면서지요. 누님의 계획은 그러나 중금속 서두름이 없이 제 인생의 소년기 때부터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며 초등학교 시절 얼마 안가 그만 두었지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할머니 손에 이끌려 동부 장로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으로 저의 신앙생활의 예비적인 준비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강아지도 법질서를 지키는데...

어느날 남춘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를 대기중이었다. 피계제하고 못생긴 강아지가 탈탈거리며 건널목 신호등 앞에서 두리번 거리다가 푸른신호등이 켜지자 탈탈거리며 건너는 것이다. 때가 오후 2시요 방학때라서인지 신호를 기다리는 차는 내차 하나였고 길을 건너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강아지가 푸른 신호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것을 보고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놀라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다.

마침 공공롭게도 시간맞춰 그놈이 건너려고 할 때 푸른신호가 들어왔고 또 어쩌다보니 흰색선 쳐진 건널목으로 건너갔다고 치자. 그래도 그놈은 법질서를 지키는 놈이 되었다. 하물며 법을 만들어,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왜 법 질서를 모르겠는가?! 그럼에도 스스로 법을 깨뜨리는 혼란을 자초하는 경우는 허다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세상을 떠돌씩 하게 했던 변호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법 정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있다.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형제간에 다투면 나무래면서도 부모인 부부간의 다툼은 아이들 앞에서 한번도 치밀되거나 비판 당하는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어디에서 합법성을 찾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학교에서는 정의를 가르치면서도 기성세대들의 부정한 모습과 사회의 불의는 끊임없이 보인다. 세상은 그렇다고 치자. 도대체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말이다.

교회에서는 빛을 부르짖으면서도 교회 밖으로 나오면 당장 미움, 다툼, 시기, 부정, 비판, 정죄, 교만, 이기심, 불신앙의 어두움으로 가득차 있다.

이를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나님은 질서를 지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우주와 대자연이 그것을 증명하고 성경이 확실하게 고쳐나가는 웅대한 말인가?

우선 내 당위성만을 고집하는 고정관념의 틀부터 때려 부수지 않으면 결코 교회 안팎 어디에서도 법도, 하나님의 의도 이룰수 없을 것이다.

도대체 상대만 겸손해야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가.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세워 자기 고집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교만의 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리 흔치 않은 것 같다.

강원도, 춘천의 성도들이여!

강아지의 법 정신을 배워 그리스도인 다워지자.

(편집부 K독자)

중세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모든 교회가 부활절이면 여러가지 색의 삶은 달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유래를 보면 십자군 전쟁(1095~1270)에 참여한 남편을 기다리는 ‘로자린드’가 남편이 돌아올 길목에 집을 얻어 살면서 소식을 끊긴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부활절날 부인은 달걀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라는 글씨를 쓰고

부활절 달걀 유래



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숲속의 새집에 넣고 마을 아이들에게 찾아서 가지도록 했

다. 그 중 한 아이가 달걀을 찾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쓰러져 있는 십자군 전쟁의 패잔병 한 사람을 만났으며, 굶주린 병사에게 달걀을 주었다.

달걀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는 아내와 같이 즐거워하던 글이 적힌 것을 보고 패잔병은 깜짝 놀랐으며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달걀의 출처를 물어 사랑하느 아내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아내 「로자린드」는 그 후 부활절마다 색달걀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풍습으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사람을 찾습니다

대전지함시 기독교연합회 서기 박종덕목사님께서 신학대학졸업후 소식을 알 수 없는 송조영 전도사님(당시)이 춘천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간절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 또는 아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박종덕 목사 : 서대전 그리스도의교회

(042) 531-5454 (휴) 019-431-5454

춘천성시신문사 : (0361) 256-1260-1

우리의 꿈 우리의 시명 춘천성시화

뜨겁게 움직이는 성시화기도모임

춘천성시화기도모임은 World Vision 3층 강당을 예배처소로 정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기도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성시화, 부흥, 직장복음화, 세계선교, 북한동포의 회생과 복음화, 중보기도학교, 성시신문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다.

지난 해는 숫자적으로 현상유지 수준이었으나 뜨겁게 기도드린 결과 금년 들어 불붙는 기도모임으로 달

라지고 있다. 1월 28일 본기도모임에 설교자로 참석한 평화감리교회 한국목사께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평화교회 성도들의 동참을 약속함에 따라 2월 4일부터 성시화기도회는 불이 붙게 되었다. 춘천의 많은 교회가 동참한다면 더욱 뜨거운 기도모임이 되고 교회의 부흥은 물론 성시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



천원의 정성으로 만드는 신문

독자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춘천성시신문은 성시화운동과 함께 전국최초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3천명의 독자들의 가정과 직장을 매일 방문하는 성시신문은 후원자들의 봉사로 만들어지고 무료로 배부됩니다.

98년 9월 15일 창간호를 내고 순천의 300여교회와 43개 직장·개인들에게 지역교계소식과 민음의 양식

을 보내며 직장인들을 예수민게 하는 문서선교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18개시군의 일부교회와 서울·인천·대전·청주 등 전국에 널리 배포되어 각지도 성시화운동의 촉매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에 동참하신 분들은 매월 보내지는 후원금으로 신문을 통하여 직장복음화와 성시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것입니다.

성시 외비 송금 방법

농협 203-02-280238(예금주/조남진)

강원은행 509-05-025501-001(예금주/조남진)

우체국 200022-0239352(예금주/조남진)

국민은행 301-01-0585-522(예금주/조남진)

제일은행 625-20-265119(예금주/조남진)

· 회비-(단체)월1만원이상, (개인)1천원이상

· 년회비-10만원, 특별회비:5만원이상, 평생회비:100만원

· 송금방법은 자동이체가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서 신분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세요.

※매월 5일 강원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시 입금수수료가 없는 날입니다.

성시신문 기사 보내 주세요

보내실곳

원고접수기간: 5일까지

주소: (우200-091)춘천시 효자1동 373-90번지 춘천성시신문 제작부

☎(0361)256-1260~1

FAX: (0361)257-1260 PCS:016-246-2752

PC통신ID: KIBIBLE2(하이텔)

E-mail: KIBIBLE2@hitel.net

성시신문은 아주 작은 소식 매체지, 투고도 감사히 받습니다.

※ 구 독: 성시신문 정기구독(무료)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 본신문은 3,000부를 발행하며 무료입니다.

성시회원 2월 후원현황

성시회원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지극하신 정성으로 성시화운동은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후원금 결과를 지상으로 보고 드리오니 헤량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교회와 개인들의 참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인후원자

월 1,000원~5,000원: 고선희, 권순이, 김영달, 김춘배(10,000), 김현철, 박동환, 박승희, 박재복, 변순희, 성기운, 신만승, 신영숙, 안정숙, 오홍수, 이경용, 이병연, 이봉자, 이영랑, 이영림, 이준택, 이창업, 이홍순, 임은경, 왕순옥, 정유양, 정용현, 정찬복, 최경용, 한희현, 허광웅(10,000),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황병찬

월 10,000원: 강원철, 강주원, 김남철, 김영선, 남궁진, 신성균, 윤진옥, 이문자, 이학규, 장기영, 조광수, 한석웅

월 20,000원: 김철수, 김영명, 김태중, 양인평

월 30,000원: 신종철, 유근창, 조남진

월 100,000원: 조은제

단체후원자

월 10,000원: 서로사랑장로교회(20,000), 서운신학교분교(20,000), 반석침례교회(20,000)

월 20,000원: 춘천택시(주)

월 30,000원: 대광장로교회

월 100,000원: 알로에 마임

월 993,550원: 순복음 춘천교회

광고선교비

홍천농업협동조합 - 400,000원

※ 송금중에 있는 후원자

· 1,000원~5,000원: 고영희, 강원영, 김광순, 김기태, 김성금, 김성옥, 김숙자, 김영선, 김은자, 김중용, 김창호, 맹영웅, 박은주, 박희숙, 백기만, 서원탄, 서의승, 신영자, 안미정, 윤영선, 이경자, 이미경, 이승철, 이종택, 이재현, 이화자, 임성택, 임이남, 장수영, 장효덕, 정명순, 조성에, 지금복, 최영희, 한대희, 한영숙, 황용학, 황희중

· 10,000원: 김복희, 김은양, 김원호, 김중혁, 김진삼, 명위식, 박무일, 서승달, 안동규, 유태희, 윤건배, 이경숙, 이상표, 이해영, 임희호, 조자영, 지영철, 최구식, 한재하

· 12,000원: 민혜원

· 20,000원: 심혁화, 정태복, 조정일, 최계천, 최인혁

· 30,000원: 박경애, 박봉영, 배명숙, 백인일, 유수열, 정동준, 조석봉

· 100,000원: 최치광

※ 송금중에 있는 단체

· 20,000원: 직장선교연합회

· 30,000원: 일신장로교회

· 50,000원: 열린침례교회

· 광고선교비: 강촌갈보리 기도원 이평해 원장

석정갈비 - 300,000원

성광전기 김철호집사 - 100,000원

안디옥 기독교 서점 홍광유 장로 - 100,000원 이상

어린이 회관 디너레스토랑 - 200,000원 이상

감리교단 장로연합회 탐방

장로회 역사기록 담은 회보 발행

기독교 대한감리회 산하 동부연합회 장로회 연합회장 정계항장로(횡성감리교회)는 지난 10여년동안 장로회 연합회의 활동내용을 한권의 책으로 편찬하여 시무, 원로장로와 교회에 배포하였다.

수십년동안 하나의 연회에 속해있던 충북지역과 강원도지역이 98년초

다른연회로 나누어 지므로 두지역의 봉사활동사항을 역사적인 기록보존 차원에서 회보를 발행하게 된것이다.

동부연합회 감독 김명기목사(원주제일교회)는 회보발행 축하에서 감춰진 역사를 찾아 정리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장이요 역사란 반

복이 아니라 창조의 사전이라고 하였다.

동회보는 55페이지의 칼라판으로 제작되었으며 주요활동 내용을 담은 53매의 칼라사진과 역대회장, 98년도 고문, 자문위원 증경회장, 연합회 임원, 실무위원 각부서장, 지방장로 회장들의 인물사진을 실었으며 연합

회규칙과 연합회 임원주소록, 각 지방장로회장주소록, 지방별 교회별 시무장로 원로장로 주소록등으로 편집되어 장로활동의 필수자료가 되고 있다.

동부연합회에는 19개지방, 552개교회, 644명의 교역자, 683명의 시무장로, 147명의 원로 장로와 92,113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다.

금번 회보발행은 참으로 많은 역경의 결실이었으며 회원들의 기도와 물적, 지적 지원 그리고 편집위원들의 희생적인 봉사로 가능하였다.

편집을 맡아 수고한 장로는 김병기(원주), 김기태(춘천), 고병열(홍천), 강경중(춘천)이며 이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부연합회 장로님들은 감사하고 있다.



1·2대회장 김영호 장로
(음성지방 음성교회)



3대회장 김병련 장로
(강릉지방 강릉중앙교회)



4대회장 장재정 장로
(제천동지방 제천제일교회)



5대회장 김형재 장로
(영월지방 직실교회)



6대회장 김찬인 회장
(충주서지방 동부교회)



7대회장 이학규 장로
(춘천남지방 석사교회)



8대회장 김낙권 장로
(충주동지방 남부교회)



9대회장 정계항 장로
(횡성감리교회)



'99 음악과 강연의 밤

춘천지역 4개대학 교수 선교회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가를 중심으로한 음악과 강연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제4회 "음악과 강연의 밤"은 춘천의 모든 교회 목사, 장로,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믿음의 선배이며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

대학과 교회, 대학생들과 성도님들이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강연의 깨우침 속에 한대 어우러질 때 제2세대의 신앙향상을 위한 도전과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될 것이다.

금번 대학생 전도를 위하여 저명하신 강원용 목사(현 크리스찬 아카데미 이사장, 한국방송위원회 위원장의 귀한 말씀과 유명한 Koros 마림바 앙상블(지휘 이한돈교수)의 반주와 어우러지는 Soprano 이연화 교수의 아름다운 음악은 모든 이들을 매료하게 될 것이다.

※ 3월30일 오후7시,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에서 공연이 있다.



강사 姜元龍 목사

- 경동교회 목사(현 명예목사)
-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현 이사장)
-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및 실행위원
- 한국방송위원회 위원장
-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공동의장
- 통일고문회의 의장



Soprano 이연화 교수

- 이화여대 성악경연대회에 입상
- 김자경 오페라단의 피가로 결혼에 수잔나로 주역 출연
- 영국의 길드홀 음악대학 대학원
- English Singers' and Speaker's Prize, Liza Lehman Prize, Hugo Wolf Prize
- 김자경 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에서 무제타(라보레), 데스피나(코지 판루테), 발렌시엔(메리 위도우), 로지나(세빌리아의 이발사) 올림피아(호프만의 이야기) 미카엘라(카르멘) 등의 주역
- 이화여대, 성심여대, 장로회 신학대학강사를 역임
- 국립 강원대학교 예술대학교수로 재직